

자연에서 찾은 건강 >>> 두근두근 스타
글 한아을 텐아시아 기자 사진 채기원 텐아시아 기자

배우 김선아
담담하게 시한부 연기
아프지만 행복하게

김선아는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배우다. 영화 '위대한 유산'의 미영과 MBC '내 이름은 김삼순'의 김삼순, SBS '시티홀'의 신미래는 다른 배우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김선아에 의해 완성된 캐릭터였다. 특유의 거침없이 내뱉는 듯한 목소리와 현실과 헛갈릴 정도의 자연스러운 연기는 다른 배우들 사이에서 김선아의 개성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한동안 '노처녀'와 코믹 연기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던 배우 김선아를 만났다.



암환자 연기, 가슴 한구석이 늘 아팠다

Q 잠도 못 자면서 '여인의 향기'를 촬영했다고 들었다. 드라마 끝낸 소감이 어떤가.

끝난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다. 사실 시원한 것보다 아쉬움이 더 크다. 처음부터 이동도 많았고 정신없이 촬영해서 스태프, 배우들과 회식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끝났다.

Q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이연재는 죽지도, 치유되지도 않은 채 끝났다. 결말은 마음에 드나.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예쁘고 좋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실 결말을 알고 시작했다. '여인의 향기' 자체가 희망을 주자는 절대적인 의지가 있는 작품이었는데 이걸 끝까지 지켜주신 감독님, 작가님이 대단하다. 요즘 특히 드라마는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가기 어렵지 않은가.

Q 암환자 연기는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다. 쉽게 경험해 볼 수도 없고 단순히 상상만 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힘들 거라 예상은 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아팠다. 항상 엄마들이 아플 때 가슴 치는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늘 아팠다. 워낙 이연재가 마음부터 몸까지 아픈 게 공존한 캐릭터니까. 1회부터 16회까지 매 신마다 감정 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아프지만 행복했던 시간

Q '이연재스럽게' 연기하며 몰입한 만큼 캐릭터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지금도 정리 못 하고 있다. 한 작품 끝나면 좀 힘들어하는 편이다. 바보 같을 수 있지만, 밖에도 잘 안 나가서 작품 끝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힘들기도, 편하기도 하다.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기는 해도 오랜만에 동창을 만난 것처럼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기분이

든다. 촬영하면서 우리끼리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시즌 2를 한다면 강지옥은 "12년이 지났다. 그녀는 아직도 살아 있다."고 하고 이연재는 "이 남자, 아직도 일을 한다. 내가 먹여 살린다." 식으로 하는 거다.(웃음)

Q 이번 작품을 통해 새롭게 느낀 연기의 매력이 있을까. 이렇게까지 아플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아프면서도 행복할 수 있구나, 이게 내 삶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진심으로 와 닿아서 이번 작품이 남달랐다. 이렇게 3개월 내내 명치가 아팠던 적은 처음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좋은 작품 만날 수 있어 특별히 엄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고 작품을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인기를 떠나 인간으로서 성숙해져 가는 것 같아서 더 좋다.

Q 15년 넘게 연기 생활을 하고 있다. 배우 김선아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나.

큰 목표가 있다기보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열심히 하고 싶다. 나름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은 귀찮아질 수 있고 잠시 정신을 놓을 수 있지 않나.(웃음) 그런 거 없이 앞으로도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고 싶다.

'여인의 향기'에서 김선아가 연기한 담낭암이란?



담낭암은 쓸개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말기가 되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복부 통증, 불편함, 체중감소, 황달,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문강한 사람은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다.

담낭암의 발생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환경적·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담낭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류 및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사습관을 피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 기름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